



찾아가는 건강 경로당.

목포시, 폭염 속 건강한 여름나기 나서

종합계획 수립... 온열질환 예방 힘써

5월 중순부터 낮 최고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빨라진 무더위로 인해 올 여름도 폭염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목포시는 때 이른 폭염 속에서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시 보건소는 폭염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독거노인과 거동불편 어르신을 대상으로 방문간호사 12명이 1대1 가정방문과 안부 전화를 통해 기초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폭염 대비 행동요령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온열질환

을 사전 예방하는데 힘쓰고 있다.

또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폭염에 노출되기 쉬운 어르신들을 무더위 쉼터로 안내하고, 일사병·열사병 및 혈압·혈당 등 이상 소견자는 즉시 의료기관에 연계하는 등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폭염주의보·경보 시에는 ▲뜨거운 한낮(12~16시)에 외출자제 ▲충분한 수분섭취 ▲카페인 및 염분 함유음료 섭취자제 ▲가볍고 헐렁한 옷 착용 ▲인근에 있는 무더위 쉼터(행정복지센터, 경로당 등) 이용해 폭염 피하기 등의 생활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전남 목포=김원유 기자 wonyoo9700@



장성군 소상공인과의 간담회.

장성군, 소상공인 자립 돕는 지원책 마련

임대료 지원·대출이자 차액 보전 등

장성군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장성군은 지난 3일 군청 상황실에서 '2019 상반기 장성군 소상공인과의 간담회'를 열었으며, 유두석 장성군수와 소상공인 점포임대료 지원 대상자 18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경기 침체를 생업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만들어진 자리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지원책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장성군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해 호평을 받고 있다. 장성군이 시행하고 있는 '점포임대료 지원'은 신규 점포임대사업자 또는 업종전환자에게 연 최대 4백만원 이내로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대출이자 차액보전'은 군 자체에서 지원하는 3%와 업무협약을 맺은 6개 금융기관이 지원하는 2%를 포함하여 총 5%의 대출이자를 연 2백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군은 점포임대료 지원사업으로 212명에게 6억3천여만원을 지원했으며, 대출이자 차액 지원사업 등으로 820여 명에게 3억여원을 지원했다.

/전남 장성=봉채영 기자

오늘의 날씨

6월

5월 (水)

음력 : 5월 3일

수도권 날씨

28~18°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연천 16/29

동두천 16/29

백령도 14/20

파주 15/27

가평 15/29

서울 18/28

양평 17/30

인천 17/24

수원 17/30

용인 17/30

평택 16/30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대기오염 거짓기록’ 여수산단 5개 기업

5년간 환경개선에 3250억 투자

민·관 거버넌스 위원회 제3차 회의
미세먼지 설비 확충 등 자구책 발표

여수산단의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거짓기록 5개 기업이 2023년까지 3250억 원을 투자해 산단 최적 환경관리에 나서겠다는 자구책을 마련했다.

전라남도는 여수산단 환경관리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 제3차 회의를 지난 3일 여수시의회에서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거짓기록 위반업체인 엘지화학, 금호석유화학, 한화케미칼, 지에스칼텍스, 롯데케미칼, 5개사가 환경개선대책을 발표했다.

환경개선대책 주요 내용은 ▲대기 TMS(Tele Monitoring System) 부착 확대 ▲여수산단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관리기반 구축 및 사업장별 악취측정기 설치 ▲미세먼지 저감, 환경시설 최적화 등 환경 분야 설비 확충 등이다.

또 ▲서면사과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 합동조사에 성실한 협조 ▲



전남도청 전경.

환경부가 마련 중인 대기 자가측정제도 개선 방안 적극 수용 및 자체 개선 방안 마련 ▲기업체 및 지역 주민 간 상생협력 방안 적극 모색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주민 대표들은 기업체가 발표한 투자계획에 대해 시민이 확인할 수 있는 검증·공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고 기업체에서는 이를 수용했다.

주민대표들은 또 지역사회 공헌 방안과 5개사 투자 계획의 시기별 세분화, 엘지화학을 제외한 4개사의 대표이사 명의 사과, 유류저장탱크 개방검사와 관련한 미세먼지·토양오염 저감대책, 주민이 선정한 측정대행업체를 통한 현장조사 시행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선 차후 검토를

거쳐 종합대책 수립에 반영키로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이철우 국립환경과학원 과장이 현재 환경부가 추진하는 ‘광양·여수 국가산단지역 주민 환경오염 노출 및 건강영향조사’ 연구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이 발표과제를 거버넌스 의제인 ‘여수산단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및 유해성평가’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되 역학적 감시 차원에서 시행하는 일반적 조사가 아닌 여수산단에 대한 추가적이고 세밀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대상 및 위치 선정의 적정성에 대해 지역사회와 충분히 소통하자고 제안했다.

전라남도는 여수산단내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현황을 소개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개별 공장 폐수종말처리장 방류수의 중금속 검사자료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관리감독 기관인 전라남도도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다음 회의에서 각각 발표하기로 했다.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 제4차 회의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여수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남=봉채영 기자 bcy2020@metroseoul.co.kr

정헌율 시장, OWHC 총회서 익산 알리기 ‘총력’

(익산시)

(세계유산도시기구)

세계유산 각국 대표단 만나 의견 나눠
폴란드 크라코프와 우호 교류 협의

정헌율 익산시장의 폴란드에서 개최된 세계유산도시기구(OWHC) 세계총회에 참석해 세계유산도시 익산을 알리고 세계유산 각국 대표단과 관광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정 시장은 지난 1일부터 4일간 폴란드의 역사도시 크라코프 국제컨벤션센터(ICE)에서 개최된 세계유산도시기구(OWHC) 세계총회에 참석해 각국 대표단들과 세계유산과 관광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세계총회는 세계유산을 보유한 전 세계 93개국 315개 도시들의 총회로 2년마다 개최된다. 지난 2017년 경주시에 이어 올해 폴란드 크라코프에서 개최됐다.

이번 총회는 세계유산과 관광을 주제로 세계유산과 지역사회의 공존방식과 유산을 보존하면서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역사도시들이 직면한 과제를 논의하고 관광사업의 활성화 방



/익산시

안에 대해 각국의 경험과 과제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일에는 아태지역사무처인 경주시 주최로 총회에 참여한 대한민국 12개 세계유산도시 대표단과 함께 크라코프 구시가지의 세계유산과 유적지들을 투어한 후 전 세계 회원도시 시장단이 참여한 개막식에 참석했다.

3일에는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임시회에 참석하고 백제역사유적지구 홍보부스 등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개최도시 크라코프 시청을 방문해 야채 마이흐로프스키 시장과 환담을 가졌다.

정 시장은 환담에서 역사문화와 자연 그리고 산업이 공존하는 두 도시의

공통점에 대해 공감하고 익산시와 크라코프 간 우호협력을 제안했으며 세계유산의 보존과 관광활성화에 대한 행정의 역할과 정책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했다.

4일에는 차기 개최도시 투표와 이사회 투표, 시장단 워크숍 등에 참여해 공식일정을 마무리했다.

정 시장은 “폴란드는 중세문화가 잘 보존되어있는 반면 아픔의 역사도 간직한 도시지만 행정과 주민들이 협력해 관광사업이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광의 상생방안을 새롭게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전북 익산=봉채영 기자

광주시, 신규 분양 아파트 불법거래 집중단속

광주광역시시는 지난 5월부터 신규 아파트 분양이 본격 시작됨에 따라 분양사무소와 불법거래 의심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에 나선다.

광주시는 최근 건설사들의 신규 아파트 분양과 홍보가 활발해지면서 외

부 작전세력이 청약통장 불법거래, 다운계약, 땀다방 등을 활용해 분양가 상승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보고 자치구, 경찰청, 국세청,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함께 시장동향과 거래동향 정보를 공유하고 신규 분양사무소 등에 대한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먼저, 지난 5월24일 문을 연 화정동 현대 아이파크(I PARK) 분양사무소와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중심으로 시와 자치구, 경찰청, 국세청 합동단속반이 매일 현지에서 불법거래 행위 예방을 위한 단속과 함께 현수막 설치,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한 홍보활동도 하고 있다.

/광주=봉채영 기자